

<2013년 9월 1일 주일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 9월의 방향

작은 조건, 큰 대가다

본 문 창세기 25장 31-34절, 27장 25-29절, 41장 37-43절
마태복음 16장 15-20절 (메시아를 알아본 조건으로 천국 열쇠를 받다)
마가복음 9장 23절 (믿음의 조건으로 능력을 받다)
로마서 10장 13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을 빕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9월 1일입니다.

2013년도 이제 펴 시간이 3개월 남았습니다.

12월은 연말이라서 뛰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하시간입니다.

고로 2013년도에 펴 시간은 3개월 남았습니다.

잠자는 시간과 기타 잡시간을 다 빼다면,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2013년에 펴 시간이 60일 남은 것입니다.

오늘은 9월에 행해야 할 목표를 줄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누구나 꼭 행하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기만 하면, ‘대가’는 아주 크게 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줄 테니,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정말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를 보면, 또 이 시대까지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적인 <조건 - 대가>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으로 137억 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해 놓고, 땅에는 ‘육신’을 중심한 이상세계를 시작하셨고, 영으로는 ‘영’을 중심한 이상세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키워 오시다가 때가 되어 <종교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를 택하시고 “절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죽는다.” 하시며, ‘조건’을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땅과 하늘에 이상세계를 이루는 조건’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조건을 안 지키면, 영이 죽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이 심판을 받음으로 육도 사망권 세계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고로, 땅에 이상세계를 이루지 못하고 육으로 끝나게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조건을 지키면, 일생 동안 말할 수 없는 좋은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도 살아서 구원받고, 그에 따라 육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땅에 이상세계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조건, 즉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는 조건’을 안 지키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의 ‘영’은 죽었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육’은 살았으나 사망권에 거하여 일생 동안 저주와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 후손들도 4000년 동안 형벌을 받았습니다. <끝>

이 시대도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조건, 곧 이성 범죄를 짓지 않는 조

전을 지킨 자들만 조건을 지킴으로 ‘대가’를 받으니, 시대를 알고 대가가 무엇인지 압니다. 이성 범 죄를 짓지 않는 조건을 안 지킨 자들은 ‘대가’를 못 받으니, 전혀 모릅니다.

구약시대 때는 아담과 하와가 ‘조건’을 안 지켰기에 그 시대는 <형벌 기간>을 보냈습니다. <형벌 기간>이라서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대로 그 뜻과 역사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조건’을 안 지켰기에 구약 4000년 동안 그 자손들과 지구 세상에 사는 자들이 형벌 기간을 보냈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2>

형벌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성자는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구약의 터전 위에 새로운 구원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곧 <신약역사>였습니다.

<신약 때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건을 세우는 자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는 대가를 얻었고, ‘메시아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 대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기다리던 율법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구약말씀과 다르게 말씀을 가르치니, 예수님을 불신하고 악평하고 핍박했습니다.

또 성경에 ‘구름 타고 하나님이 온다.’라고 말한 대로 율법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하늘의 흰 구름을 타고 신의 몸으로 직접 땅에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자와 함께 ‘예수’라는 깨끗한 ‘인간 구름’을 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흰 구름을 타고 직접 오실 줄 알았으니, 예수님이 땅

에서 인간으로 왔어도 하나님과 성자가 그에게 임하여 강림하신 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악평하고 핍박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율법 주관권의 구약 종교인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 후손들은 2000년 동안 형벌 기간을 보내며 형벌을 받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른 자들도 구원받고 살았으나 고통 중에 믿었습니다. <끝>

<전 환>

성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다시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구름 타고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2000년 자녀급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계획한 대로 이 시대에 합당하게 예비시킨 자의 육신을 쓰고 또 행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때 약속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3>

신약의 예언대로 전능하신 성자께서 그 육으로 쓸 합당한 자를 예비시키고, 그 인구름을 타고 다시 오십니다. 재림 때는 성자께서 땅에 신부로 준비시킨 자를 가르치고 만들어서, 그 인구름 육신을 타고 다시 오십니다.

신약 때도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성자’가 오셨습니다. 고로 신약 이후에도 합당한 자의 육신을 쓰고 ‘성자’가 다시 와서 행하십니다.

성자의 육이 되는 자가 성경에 말한 대로 ‘인간 구름’입니다.
성자는 그 ‘인간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십니다.
그가 성자의 말씀을 받아서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을 100% 믿고 따른 자들이 그 ‘조건’ 으로 성자의 신부가 되어서 땅에서 성자가 육으로 쓰는 자를 맞습니다.

이들도 ‘인간 구름’ 입니다.

성자는 ‘인간 청중 구름’ 을 타고 재림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성자의 육이 되는 자가 전하는 말씀을 100% 믿고 따른 자들이 그 조건으로 성자의 신부가 되고, 거기서 시대 말씀에 따라서 100% 온전히 행한 자들의 <영>이 신부로 변화되어 천국으로 휴거됩니다.

<육신>은 땅에서 성자가 그 육으로 쓰는 분체를 믿고 성자를 믿고 사랑하면, 땅에서 시대 역사를 펴면서 땅에서 육이 휴거의 삶을 삽니다.

<끝>

조금 쉬었다가 (* 다시 화면을 보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영상4>

그러나 이 시대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 무지하여 성경의 비유로 된 말을 문자 그대로 알고 ‘예수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눈에 보이게 온다.’ 하면서, ‘성자가 쓰는 사람이 구름’ 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자가 그 인구름을 타고 다시 온다’ 라고 믿고 가르치는 자들을 이단시합니다. 또 ‘예수가 오면, 인간의 육신이 휴거되어 천국으로 간다.’ 하면서 그릇 되게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와 똑같습니다.

<끝>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 때같이 자기 주관과 무지로 하나님의 역사를 배척합니다. 깨달으면, 예수님 때 예수님을 믿고 가듯이 하나님의 새 역사를 펴며 뜻을 이루며 갑니다.

<깨닫고 따르는 것>과 <몰라서 따르지 않고 반대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천주교와 개신 기독교

교>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는 구약 종교인들>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시대도 <구름>을 ‘사람’으로 믿고, ‘성자’를 맞고, ‘성자가 이 시대에 합당한 자의 육신을 쓰고 오신 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육도 영도 ‘휴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불신하는 자들>과 <알고 깨닫고 따르는 자들>은 ‘땅과 하늘 차이’입니다.

모르는 자들은 “예수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온다.”라고 믿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올 것을 기다리며, “육신이 천국으로 휴거된다.”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던 2000년도는 이미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안 왔습니다. 하나님과 성자는 인간들이 준비됐든지, 안 됐든지, 하루도 안 틀리고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때는 이미 13년이나 지났습니다. 그 날 온다고 한 자가 그 날이 다 가도록 안 왔으면, 끝난 것입니다. 그 날의 시간이 다 갔는데, 오겠습니까?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5>

신구약 6000년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 성자가 인간을 쓰고 행하셔도 모두 다 알고 맞은 것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들만 알고 따랐습니다. 모르니까 그 당세에는 소수의 무리들만 역사를 맞았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이 흐른 뒤에야 점점 역사가 커져서 민족과 세계가 역사를 따랐습니다.

<섭리역사>도 처음에는 선생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선생이 성자에게 받은 말씀을 외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다고 다 새 역사를 맞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자기 판단으로 잘못 해석하고 나가기도 하고, 중간에 어려움이 있으니 끝까지 따라오지 못하고 오다가 말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은 자들은 책임을 다한 자들입니다. <끝>

하나님과 성자가 택했어도 자기가 시대에 해당되는 ‘조건’을 못 지키면, 하나님과 성자께서 자기에게 역사하실 때 제대로 모르게 되고, 결국 불신으로 흐르게 됩니다.

고로 가르치는 자들도 배우는 자들도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육신>도 ‘땅’에서 성공하는 휴거 역사를 이루고, <혼과 영>도 천국으로 휴거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처음에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것’이 <육신 일생>과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합니다.

고로 가르치는 자들은 배우는 자들이 먼저 자기 잘못된 인식관을 버리게 하고, 그 터전 위에 시대 말씀을 배우게 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는 한 생명의 영원한 운명을 책임지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배우는 자 역시 잘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절대 조건’입니다. 아멘.

<전환>

설교 시간에도 <잘 전하기, 잘 듣기, 잘 행하기>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절대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세우면, 그에 대한 ‘대가’가 크게 옵니다.

잠언 말씀이나 주일, 수요말씀을 전할 때, 설교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더 넣고, 발음을 확실히 하지 않고 틀리게 하고, 원본과 다르게 설교 하면, 정말 안 됩니다. 성자의 설교 흐름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보고를 다 받고 처리하려면 선생이 생명을 돌보고 말씀을 받아서 보내 주는 데에 시간상 차질이 생기니, 앞으로는 설교 점점 목사들 책임 하에 설교자들을 가르치든지, 교체하든지 하는 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려면, 목회자는 성자가 쓰는 자들이니, 정말 기도하고 신경 써서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조건’입니다. ‘조건’이 돼야 그로 인해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 운영이 잘되는 대가’가 오게 됩니다. 반드시 ‘조건 - 대가’입니다.

선생도 여기 있다고 해서 내가 처한 환경이나 각종 여건 때문에 성자 앞에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절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섭리의 지도자들은 바깥에 살면서 자유로운 몸입니다. 하나님과 성자께서 부르신 귀한 생명들이 따르고 있으니, 정말 책임지고 설교할 때 고칠 것을 고쳐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치라고 해도 자기는 상관없는 듯 여전히 그대로 하는 자들이 있기에, 앞으로는 각 교회에 설교 원본을 줘서 집중적으로 확인하게 할 것입니다. 전능자 성자의 말씀입니다.

교인들도 차원을 높이고, 설교자도 차원을 높여야 됩니다.

선생은 항상 조건을 세우면서 성자에게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받아 설교를 써서 보냅니다. 특히 최근 말씀은 두 달 이상 절식 기도를 하면서 받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설교로 쓴 다음에는 혹시라도 원본에 잘못되게 설명되

지는 않았는지 24단계를 거쳐서 확인하고 보냅니다.

그 고통을 겪으면서 성자에게 말씀을 받아 설교로 써서 보내 주는데, 설교자가 별로 신경 쓰지 않으니, 그 조건을 잡아 말씀합니다.

어떤 교역자는 ‘말씀의 주제’도 제대로 말해 주지 않고 설교합니다.

주일말씀으로도 이미 설교에 대해서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자기는 상관없는 듯, 자기는 잘하는 듯 고치지 않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혹은 설교에 대해서 말할 때는 조금 신경 써서 준비하고 설교하다가도, 뇌가 굳어서 정신 차리지 않고 또 틀리게 설교합니다.

그러면 결국 교회의 생명들 때문에, 교단에서 자동적으로 잘하는 교회의 교역자가 전하는 설교를 방송으로 연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못 고치면 생명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에 대해서 말씀한 지 이미 6개월이 넘었습니다. “설교할 때 발음, 띄어서 읽기, 제스처, 강약 조절 신경 쓰고, 성자와 분체의 심정을 담아 전해라. 그러기 위해 미리 충분히 준비하고 기도해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조건’으로 두고 절대 실행할 것입니다. 조건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대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섭리사 여러분 모두가 이해하기 바랍니다.

<전환>

‘조건’은 작든지 크든지 성자가 주시고, 그것을 선생이 듣고 섭리사 전체에 말해 줍니다. 고로 ‘성자가 주시는 조건’은 절대 지켜 행해야 됩니다.

* 선생에게도 ‘성자가 주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으로 해

서는 그 조건이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고로 2개월 동안 몸부림을 치면서 행하다가, 결국 어느 날 100%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자께서 이 말씀을 쓰는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자는 성경 전체를 깨우쳐 주시면서 “하나님과 나 성자가 준 조건을 안 지키면 뜻이 깨지고, 조건을 지킨 자들만 뜻을 이루며 역사를 펴 나갔다.” 하셨습니다.

선생이 성자가 주신 조건을 절대 지키니, 성자께서 그 말씀을 주셨고, 오늘 그 말씀을 섭리사 전체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선생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하고 꼭꼭 기도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쓰는 것, 써 놓은 책을 교정하는 것, 서류와 보고 결재, 편지에 대한 답을 하는 것 등으로 정한 기도 시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체 다 미루고, 결국 하루 3번의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2개월 동안 기어코 해서 다시 리듬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쓰는 날인 오늘, 성자께서 ‘조건’이라는 비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로 섭리사 전체가 알도록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조건을 지키니, 성자께서는 ‘조건’에 대해서 숨겨진 비밀의 말씀을 <잠언>으로 100개 이상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수요일에 해 줄 것입니다.

선생부터도 성자가 절대 조건을 주셨으면, 내가 그 조건을 지켜야 성자께서 해 줄 것을 해 주십니다.

성자 주님은 성자가 주신 조건을 지키면, 무엇을 해 주실지는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조건을 지킨 자에게만 계속 주십니다. 고로 조건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는 조건을 지킨 자만 압니다.

조건을 지키고 대가를 받아도, 무엇을 받았는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도 조건을 세우고 성자에게 받아도 무엇을 받았는지 일반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6>

섭리사에 <성자 본체>에 대한 인봉의 말씀이 풀릴 때도 선생이 ‘40일 에스더 기도 조건’을 세울 때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나게 위대하고 깊은 비밀의 말씀입니다. 재림을 맞고 휴거를 이룰 위대한 말씀입니다.

<성자 본체> 말씀이 선포된 이후로, 성자는 성자를 상징하는 <성자바위>를 섭리사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자바위>도 그냥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생이 ‘21일 조건 기도’를 하고 나서 받았습니다.

<끝>

선생은 2개월 절식 기도를 끝으로 ‘조건’이라는 말씀을 받았고,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이제 3개월째 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핵심 이유는 ‘휴거’ 때문입니다.

기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올해 하계 수련회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고, 휴거를 이루게 할 말씀입니다.

또한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고, 꿈을 실현할 말씀입니다.

진짜 기도해야 ‘기도 조건’이 됩니다.

날짜만 채우는 것은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고장 난 뇌가 고쳐질 때까지 고치듯이,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어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됩니다.

‘뇌’가 고장 나 있고, ‘몸’이 연단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은 원해도 마음먹은 대로 행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일을 두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으로 간절히 원해도 안 되는 이유는 ‘뇌’가 굳어 있고 ‘육신’이 연단돼 있지 않아 약하니,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마음먹은 대로 행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핵은 ‘뇌’입니다.

‘마음’보다 ‘뇌’가 핵입니다.

‘마음’은 수시로 변해도 ‘몸’은 그렇게 순간 변하지 않습니다.

‘뇌’는 몸입니다. 육신입니다.

고로 몸인 ‘뇌’를 연단시키고 단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긴 기도 조건을 세우니 성자께서 깨우쳐 주셨기에 이 비밀의 말씀을 수련회 말씀으로 모두에게 전해 주었고, 오늘도 전해 줍니다.

마음이 변하니 몸이 변하다고 하지만, 근본은 그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핵인 뇌에서 변하니, 그 결과로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도 섭리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21년 동안 ‘뇌와 몸’을 고치고 연단했기에 마음먹은 대로 행했습니다.

뇌가 굳어 있고 몸이 약하면, 마음으로는 정말 간절히 원하고 하고 싶

어도 몸으로 행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고로 먼저는 ‘뇌와 몸’을 고치고 연단하여 마음먹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성자의 뜻에 따라 섭리역사를 펴 왔습니다.

그러다가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고 무지하게 행하여 사명자로서 그 짓값을 대신 받으며 조건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환>

조건이 작아도 그 조건을 안 지키면, 그에 대한 ‘형벌’을 크게 받습니다. 조건이 작아도 그 조건을 지키면, 그에 대한 ‘대가’ 역시 크게 받습니다.

(* 조건을 지켰을 때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사랑하신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이해시켜 주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7>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억울하게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 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주인의 아내는 요셉에게 사랑의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에 요셉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한 꿈을 꾸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바로 왕은 그 꿈을 풀지 못하여 심히 번민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 중에서 꿈을 풀어 주는 자를 찾았습니다(창 41:1-44).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 꿈을 풀었고, 그 ‘조건’으로 결국 ‘이집트의 총리대신’이 되어 누명을 벗었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를 펴 나갔습니다.

야곱도 팔족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사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 축복’을 받고, 평생 잘되고 형통했습니다. <끝>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앞에 ‘작은 조건’을 지킴으로 그리 크게 됐습니다. 고로 조건이 작다 하지 말고, 꼭 행하고 기어이 지켜야 됩니다.

선생도 이 시대에 하는 일에 비해서 21년 기도하고 배운 조건은 작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수천 번 읽고 제대로 푸는 ‘조건’을 세우니, 이 시대에 성자의 역사를 펴는 데에 그 몸이 되어 사명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말씀은 구세주 성자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1999년에 선생이 한국에서 유럽으로 갈 때, 섭리사에 전한 말이 있습니다. “이성 문제 절대 없게 해.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 환난의 바람이 불어서 유럽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때가 되어서 간다. 내가 가면 사탄이 너희를 혼드니, 말씀으로 사상을 굳건히 세우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고, 이성을 다스리고, 환난을 이기고, 형제들과 화목하여라. 타국에 주인이 갔다 온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이 시대에 이뤄야 한다.” 했습니다.

한국도 해외도 이 ‘조건’을 못 지킨 자는 못 받았고, 이 ‘조건’을 지킨 자는 줄 것을 주었는데, 무엇을 주었는지는 모릅니다.

조건은 비밀의 것들이고, 조건에 의해 받는 것도 비밀의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성자가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안 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자께서 주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자께서 조건을 주셨을 때, 그때 하지 않아 잊어버리고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조건’은 ‘약속’이기도 합니다. 고로 기도해서 찾아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면, 해 줄 것을 해 주십니다. 고로 성자와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고 못 한 것이 있는지, 기도해서 찾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해도 안 될 때 기도하면, 성자는 “이렇게 해라.” 하며 ‘조건’을 주십니다. 그것을 지키면, 원하는 것이 됩니다.

성자는 조건에 대한 100개의 잠언을 주시면서 “조건은 답이다.” 하셨습니다. “조건은 자물통의 열쇠다.” 하셨습니다. 고로 ‘조건을 지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 성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조건은 고장 난 기계나 차의 고칠 곳을 가르쳐 주어 고치는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고로 ‘조건을 지키면’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생이 먼저 지키고 이미 얻을 것을 얻고, 여러분도 저마다 조건을 생명시하고 행하여 얻을 것을 얻으라고, 해 준 것입니다.

선생은 조건을 세우고 ‘시대 말씀과 각종 것들’을 얻었습니다.
얻은 것은 결국 섭리사의 것이 됩니다.

조건을 지키고 얻었으면, 다 말하지 말고 말할 것만 말해야 됩니다.
받은 것을 다 말하면, 사탄이 오고 인사탄이 옵니다.

조건을 주면, 왜 이 조건을 지켜야 되는지 묻지 말아야 됩니다.
<조건>은 ‘성자가 주시는 시험문제’입니다.
<지키는 것>이 ‘답’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조건을 세운 것만 주셨습니다. 조건을 안 세운 것은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한 기본의 것만 받았습니다.

조건은 ‘돈’ 과 같아서, 조건을 세우면 값을 지불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고, 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도 섭리역사를 펴기 전에 성자께서 ‘70일 금식 기도’ 를 하라고 하시어, 각종 죽음을 체험하고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조건을 세웠습니다.
그때 그 대가로 ‘시대 말씀’ 을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어느 때는 기도 조건, 어느 때는 전도 조건, 어느 때는 관리 조건, 어느 때는 예배 시간을 지키는 조건, 어느 때는 믿음 조건, 어느 때는 행실의 조건, 어느 때는 십일조와 감사의 조건, 어느 때는 100% 사랑의 조건, 어느 때는 성자가 분체를 통해서 주는 말씀에 순종하는 조건입니다.

<전환>

올해는 ‘말씀과 전도의 해’ 입니다. 고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우리에게 ‘전도하는 조건’ 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는 조건’ 은 선생이 책임을 지고 계속해서 상(上) 차원에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조건을 주시고, 우리가 그 조건을 지키는 것을 보시고 절대 조건대로 주실 것입니다.

‘말씀과 전도의 해’ 에 뭘 시간이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조건을 깨닫고 행하기 바랍니다.

죄가 있는 자들은 ‘절대 회개하는 조건’ 을 세워야 용서해 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으로 휴거되지 못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꺼리는 것이 죄입니다.

특히 이 시대는 ‘사랑 지키기 조건’을 꼭 지켜야 됩니다.

휴거 때에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느냐, 못 전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자들의 휴거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고로 설교에 자기 말을 더하지 말고 원본대로 성자의 심정대로 전하는 조건, 설교할 때 발음을 확실히 하고 띄워 읽으며 잘 전하는 조건, 제스처를 적절히 잘하는 조건, 강약 조절을 잘하는 조건 등 모든 것이 다 조건입니다. 조건을 지키면, 얻을 것을 얻습니다.

또한 성령 받기 조건, 성자와 교통하기 조건, 성자의 말씀을 전하기 조건, TV와 인터넷 게임에 시간을 안 뺏기기 조건, 하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기 조건, 술·담배를 안 하기 조건, 음란물을 안 보기 조건, 새벽에 기도하기 조건, 말씀을 지키기 조건, 성자와 분체와 일체 되기 조건, 성자를 우선권으로 두기 조건 등... 조건을 지켜야 100선, 200선, 300선 휴거를 이루게 됩니다.

‘조건’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절대 법입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8>

작년에 월명동에서 십리인들이 비를 맞으며 집회하는 것을 보고, 선생은 성자에게 간절히 기도하며 조건을 세웠습니다. 이에 성자는 “월명동에 건물을 지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사랑의 집>을 건축해 주셨습니다. <끝>

‘조건’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법인지 압니까? 하나님과 성자가 개인에게 ‘세계적인 조건’을 주었을 때, 그 조건을 지키기만 하면 세계의

운명도 돌아옵니다! 전쟁이 날 것도 안 나게 됩니다.

성자에게 ‘민족의 조건’과 ‘섭리의 조건’을 받으면, 그것을 행하면 조건을 세운 대로 됩니다. 고로 선생은 혼자라도 성자에게 조건을 받고 꼭 행합니다. ‘조건’은 꼭 지켜야 됩니다.

기도해야! ‘성자가 주신 조건’을 깨닫고 받게 되고, 조건을 행하게 됩니다.

기도도 이 시대에 누구와 의논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 주시는지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 그 조건을 지켜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것을 모르고 기도하면, 1년 동안 해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시대 말씀을 외치는 것도 ‘비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그 비밀의 조건을 행했기에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시대 말씀을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절대 성령으로 시대 말씀을 외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분체가 누구인지, 성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행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분체가 누구인지, 성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면, 그 능력과 권세가 와서 행하게 됩니다. 고로 받은 자만 알고 행합니다.

조건을 받고 행하는 것은 금덩이입니다. 작은 조건을 세웠는데, 성자는 조건을 세운 것의 10배, 100배, 1000배로 갚아 주십니다.

성자에게 조건을 받고 지키려면, 사탄이 막습니다. 악평자도 막고, 환경도 막고, 형제도 은근히 막습니다. 싸워 이기고 그 조건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대가를 여러 배로 크게 받게 됩니다.

<전환>

오늘은 ‘조건’이라는 하늘의 큰 비밀을 밝혔습니다. 성자께 이 비밀의 말씀을 받을 때, 선생은 59일째 절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새벽 1시 기도 조건을 100% 세우고, 60일이 되기 전 59일째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6월부터 7월까지 <40일 말씀과 생명 구원의 기도>를 한 터전 위에 선생은 기도를 끊지 않고 계속 조건을 세웠습니다. 이로 인해 ‘조건’이라는 비밀의 말씀도 받게 되었고, 각종 문제들도 해결됐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계속 기도했고, 9월에도 계속 이어서 조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성자께 조건을 세우고 섭리인 모두를 휴거시키려 하니, 여러분 각자도 자기에게 해당되는 조건을 세우고, 꼭 자기 때에 휴거를 이뤄야 됩니다.

선생이 섭리사 모두의 휴거를 위해 100% 조건을 세워 줬는데도 본인이 조건을 못 세워서 휴거되지 못하면, “선생님이 조건을 안 세워서 내가 휴거되지 못했다.” 하는 말을 못 하게 됩니다.

선생이 휴거 조건을 세워 주었으니, 누구나 본인만 조건을 세우면 됩니다. 휴거되지 못하는 자는 본인이 해야 할 그 작은 조건을 못 세웠기에 휴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휴거되면 여러분의 영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데, 세상의 그 어떤 조건이 천국에 가는 것에 비해 그리도 크고 어렵습니까? 조건을 안 지키려니,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은 약하니 ‘뇌 체질, 몸 체질’을 정상으로 고치고 만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고로 수련회 때부터 근본의 문제 해결 말씀을 주면서, 오늘 말씀으로 비밀을 알려 주었습니다.

말씀을 정말 귀히 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곧 성자이십니다.

말씀을 절대 받아들이면 전능하신 성자가 자기 몸에 연결된 것입니다.

악평자가 인터넷에 섭리와 선생을 비방하는 나쁜 글을 올렸다고 그것을 보고 믿고 마음이 흔들리면,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악평 글은 완전 불신하고, 성자의 이름을 대며 자기 입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절대 이 시대 역사를 믿고 따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열네 살인데, 악평 글을 보고서 악평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키고, 선생과 편지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자라고 칭찬해 줍니다.

선생이 섭리인 모두를 위해서 최대한 조건을 세우고 행하여 ‘조건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 주니, 모두 구원과 휴거를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는 조건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자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했습니다.

* 이번 주 수요일에는 ‘조건’에 대한 말씀을 잠언으로 쉽게 말씀해 줄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이 수련회 산행 때 읽었던 붓글씨 잠언 있지요? 그때처럼 이번 주 수요일 말씀 끝부분에도 모두 ‘조건’에 대한 잠언을 눈으로 보며 입으로 크게 읽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고 꼭 수요일에 참석하기 바랍니다.

<축 도>

지금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켜야 할 조건을 주시고 그에 따른 상당한 대가를 주시는 성자의 은혜와, 조건을 행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말씀에 들은 온 세계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여 조건을 알고 행하여 큰 대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